

광주·전남 大해부

<제2부> 문화도시 광주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

5 문화수도 광주의 비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된 2014년. 광주시 서구 광전동에 사는 김모(45)씨는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선다.

행선지는 최근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김씨와 가족들은 문화전당 인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아시아 예술극장'에 들어 5월 광주항쟁을 다룬 국제적인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감상한다.

이어 어린이 전용공간인 지식문화원의 문을 두드린다. 이곳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언어, 수리, 과학, 예술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지식문화원에서 놀이하는 동안 김씨 부부는 드넓게 조성된 문화전당 공원을 산책하며 단란한 한때를 보낸다.

김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광주항쟁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평화교류원(옛 도청 본관 건물)에도 들른다. 이 공간에서 김씨 가족은 5·18광주항쟁의 정신과 역사를 만나고 5월의 가치인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녹아 있는 아시아 각국의 전시와 공연을 감상한다.

금남로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들른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는 아시아 전통음악과 예술을 멀티미디어로 감상하고, 가상체험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느낀다. 이는 문화전당 개관 후 광주의 모습이다.

◇경제 발전소=문화전당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동시에 광주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 또 광주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보 교류 및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확산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집적은 자연스레 고용창출과 민자유치, 기업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일상인 '창조도시'=광주문화중심도시는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등 문화가 일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문화수도는 시민들이 전당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기 표현

다. 또 광주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보 교류 및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확산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집적은 자연스레 고용창출과 민자유치, 기업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일상인 '창조도시'=광주문화중심도시는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등 문화가 일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문화수도는 시민들이 전당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기 표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옛 전남도청 일대 전경. 문화전당은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민주평화 교류원' 등 5개 시설로 이뤄진 복합문화시설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체가 친환경적 가치를 상징한다. 또 전당과 무등산을 잇는 그린 웨이 개념을 도입하고 자전거 조깅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양식을 확산하게 된다.

◇도시 경쟁력 강화=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창조되는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 또 '도시환경-문화향유-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인 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의 릴, 영국의 셰필드, 일본의 후쿠오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이

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조되는 문화콘텐츠는 시민들의 감성, 재미, 쾌락, 공감각을 자극,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민들은 아시아의 예술을 비롯해 세계 각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담을 통해 접하게 된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이 광주에 모여드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매체들의 교류가 이뤄짐으로써 미디어 융·복합시대에 맞춰 새로운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고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올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밀그림 단계를 지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 구체화 작업, 이른바 그림에 색채를 덧칠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가칭)'을 비롯해 '아시아예술커뮤니티'의 활성화, '아시아문화전당 쇼케이스' 체험공간 운영 등... 이는 문화예술을 통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난 후에야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것은 늦다. 지금부터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파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은 아시아문화전당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9월에 열릴 예정인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월드뮤직은 영어권 팝음악을 제외한 각 지역의 대중음악을 일컫는 말로, 각 나라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해서 현대화한 것을 말

“문화전당 브랜드 파워 키우기 시민·예술인들 주체적 참여를”

한다. 이탈리아 칸초네, 프랑스 샹송, 포르투갈 파두, 브라질의 보사노바 등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소리란 장사리의 음악을 들 수 있다.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은 아시아와 세계의 뮤지션들을 초청하는 공연과 함께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시민을 위한 월드뮤직 워크숍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 화보집, 실황음반, DVD, 더 나아가 캐릭터 사업이나 음원활용, 이야기기를 구성하는 스토리텔링으로 활용되어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의 문화상품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수익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심장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어 아시아와 문화교류를 이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진취적인 주체적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이다. 특히 광주는 남도문화의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주 예술인들이 있다. 현재의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불타오르는 혼이 필요하다.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이들이 예술인들이다. 지금껏 흩어져 있던 아시아의 예술 문화가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한마당을 이뤄, 문화예술 전문가에게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아시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도시, 아시아 예술의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드넓은 세계, 그것이 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미래이다.

경제·문화산업·관광 창출 효과

年 3조 5천억원...광주 성장동력

도시 경쟁력 쑥~ 세계적 명소로

지난 2007년 (사)경영정보연구소는 문화전당 완공, 7대 문화지구 사업이 완료돼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면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 8조6천984억원, 고용창출효과가 11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화산업과급급효과는 1조9천억원, 지역 경제파급효과 1조원, 관광객 수요창출 효과는 2천450억원, 문화교육의 수요창출효과는 1천940억원 등 연간 3조5천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친환경 관광명소=저탄소, 녹색성장 등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건립된 문화전당은 관광객을 끌어들여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은 건물을 지상에서부터 수직으로 세우는 개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상론/특수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해외사용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대졸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3년
- 입학: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외상학/중의의결합임상/중약학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광주, 전남 최고!
성인 커뮤니티의 역사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귀하는 물론 해외 교포들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합니다!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합니다.
지금당장 확인하세요

100% 직접 통화
12시간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남여 공통 **1588-3533**

*여성분은 문익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트폰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 (1,920평)
- 건물
1,685㎡ (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